종군위안부…그 통한의 세월

스티븐 카발로전 8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수십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피해자들의 가늠할 수 없는 상처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인권의 달, 종군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던 비인간적 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미국 작가 스티븐 카발로는 8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There but for Fortune·또다른 운명'전을 연다.

스티븐 카발로는 지난 1991년 위안부 문제를 접한 뒤 2009년 경기도 '나눔의 집'을 찾아 희생자들과의 꼼꼼한 인터뷰를 통해 겪었던 비인간적 참상을 강한 붓터치로 고발해온 작가다. 벽안의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생활이 수채화 작품 곳곳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아가 일본의 비인간적 만행을 고발하는 작가의 강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시대의 아픈 자화상을 가감없이 들춰내면서 '그 때 그 시절, 그 상황이 바로 당신일 수 있다'는 메세지를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문의 062-231-5299

/김지을기자 dok2000@

'통탄'

여성의 욕망 꽃으로 활짝

광주여성재단 9월까지 1주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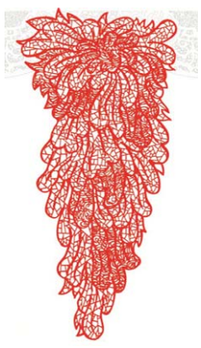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여성재단 8층에 위치한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전에 초청된 작가는 신호윤씨다.

'수상한 꽃-怪想華 她望(그녀의 바램)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신씨는 여성의 바램을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섬세한 종이 컷팅 설치작품들은 가부장적인 한국사회 구조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여성의 욕망과 바램을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주재료인 종이는 강압적으로 이분된 우리 사회를 나타내며, 이러한 산물들은 종이처럼 한 장 한 장 모여져 중층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핀 꽃인 여성의 욕망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여성을 떠나 모두의 욕망과 바램을 상징한다.

신씨는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4기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미술에 참여했다.

1일 오전 11시에는 신호윤 작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꽃 이야기'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www.gjwf.or.kr. 문의 062-670-05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월 광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엘리자벳'에는 옥주현·김선영·류정한 등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한다.

뮤지컬 '엘리자벳' 광주온다

오스트리아 황후 일대기
서울공연 매회 기립박수
옥주현·김선영·류정한 등
내달 14~15일 문예회관

뮤지컬 '엘리자벳'은 한국의 뮤지컬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프로젝트였다. 지난 1992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초연된 '엘리자벳'은 5년 만에 공연 1천회를 돌파,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독일 일본 등 세계 10개 국가 전역에서 9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유럽 최고의 흥행작이었다.

일찍이 '엘리자벳'의 소문을 들은 뮤지컬팬들은 타이틀을 누가 맡은 것인가에 대해 설왕설래하며 한국 초연을 기다렸고 지난 2월 8일 20년만에 한국에 상륙했다.

공연 오픈 전부터 60% 이상 팔려나가며 기대감을 높였던 '엘리자벳'은 서울 공연 내내 티켓 판매 순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매회 기립박수가 이어지는 등 '명불허전'임을 증명했다.

'엘리자벳'이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7월 14~1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일대기를 '죽음'과의 사랑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로 풀어낸 작품이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재탄생 시킨 사람은 세계적인 극작가 미하엘 쿤체. '모짜르트'를 통해 뮤지컬팬들을 먼저 만났던 그는 드라마틱한 그녀의 일대기에 판타지적인 요소인 '죽음'이라는 캐릭터를 추가했다.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진 엘리자벳이 '죽음'과 처음 마주하게 되고, '죽음'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극 속에서 엘리자벳의 곁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한다.

황후 엘리자벳을 암살한 혐의로 100년 동안 목이 매달려 재판을 받고 있는 루케니. 그는 판사에게 엘리자벳은 스스로 '죽음'을 원했으며, 일생 동안 '죽음'을 사랑했다고 항변한다. 루케니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 그 시대의 죽은 자들을 다시 깨우고,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가 펼쳐진다.

화려한 캐스팅은 '한국판 엘리자벳'의 최대 강점이다. 조역급까지 모두 뮤지컬계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대거 투입됐다.

타이틀롤 엘리자베스 역으로 더블 캐스팅된 디바 김선영과 옥주현을 비롯해 '죽음' 역의 류정한과 송창의, '루케니'역의 김수용·최민철·박은태, 황후를 사랑하는 황제 '요제프'역의 윤영석·민영기, 카리스마 넘치는 대공비 '소피'역의 이정화·이태원 등이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다.

'모짜르트'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만든 '나는 나만의 것' '마지막 춤', '그림자는 길어지고' 등 30여곡에 이르는 뮤지컬 넘버 역시 '엘리자벳'의 힘이다.

또, 황실의 결혼식, 무도회, 왕의 대관식 등 화려한 씬들과 합스부르크 황실의 웅장함을 그대로 재현한 무대, 엘리자벳을 포함한 출연자들의 화려한 의상, 영상 등도 눈길을 끈다. 50여명에 이르는 출연배우들의 꾸미는 화려한 무대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티켓 가격 13만원~7만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또 다른 결말 '한여름밤의 꿈'

2~3일 여수 시민회관

'여름날의 숲속으로 초대합니다.'

세익스피어의 대표작 '한여름밤의 꿈'이 2~3일 오후 7시30분 여수 시민회관에서 공연된다.

여수시 등이 주최하고 남해안발전연구소(이사장 이혜란)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극단 퀸 씨어터의 세익스피어극 각색 시리즈 중 한편이다.

극단 대표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이혜경(강릉 원주대 교수)씨가 뮤지컬로 각색한 '한여름밤의 꿈'은 원작의 결말을 비틀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품의 배경은 요정들의 세계인 숲속. 사랑의 대상을 좇아 숲속에 이른 두 쌍의 연인들은 마법에 걸려 연모하던 대상이 뒤바뀌고 만다. 여기에 아름다운 요정 여왕이 당나귀 머리로 변신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계는 얽히고 설키게 된다.

출연 배우와 스텝들이 신디사이저, 드럼, 젬배, 퍼커션, 핸드벨 등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들려주는 생생한 라이브 음악은 극의 재미를 높인다. 문의 061-652-28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주부·어린이 단원 모집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청춘'이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주부극단과 어린이극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부극단 '여배우, 제석엄마 금당씨'는 주부들이 직접 배우가 돼 공연을 체험하고 소외시설 찾아 봉사활동까지 진행하는 연극체험 활동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20주간 진행된다.

어린이 극단 '동네방네 꾸러기'는 연극의 기본 요소 등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 트레이닝 등을 받은 후 직접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주부극단과 마찬가지로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펼치게 된다.

교육은 오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2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6학년이다.

두 극단 모두 연습장소는 광주 남구문예회관 지하 1층 에어로빅실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외 파견 문화예술단 찾아요"

문광부, 8월~11월 터키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터키·폴란드·헝가리에 파견할 '해외 문화예술 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들은 문화 교류 빈도가 낮은 동유럽 지역에 새롭게 개원한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삼아 한국의 전통문화 강습과 공연을 하고 각국의 문화예술과 교류사업을 펼치게 된다.

전통예술을 전공하고 강습과 공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졸업자가 선발 대상이다. .문의 02-580-3141.

/연합뉴스